

2023년 6월 18일 “여호수아(8) 이처럼 편들어 싸우신 주님”(수 10:12-15, 40-43)

여호수아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유업의 땅을 어떻게 취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본 장은 이 주제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1] 기브온의 요청과 이스라엘의 승리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조약으로 주변 민족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남부 주요 부족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했습니다(수 10:1-5). 이에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전쟁 끝 무렵, 해가 지고 있을 때에 시간이 필요한 여호수아는 태양을 멎게 해 달라고 외칩니다(12 절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대승을 거두며 유업의 큰 선물을 받게 하십니다.

[2] 하나된 공동체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됨을 이룬 이스라엘은 함께 짐을 지며 기브온을 위해 전쟁에 나섭니다.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영적 환경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생명의 힘을 얻고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유업의 선물이 부어집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엡 1:3).

빌 1:27 과 2:2-5 에서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갈 6:2 에서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도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도록 부름 받습니다. 이것을 충족하는 길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하여서 기브온을 보호해야 하는 짐을 백성들이 함께 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3] 더욱 더 기대되는 유업(하늘의 신령한 복)

이스라엘은 여호와와의 전쟁을 통해 유업의 땅을 취합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하여 태양과 달까지 멈추게 합니다. 이런 권세는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때에는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유업의 땅을 주고 싶어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유업)을 주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이루어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와의 전쟁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무력이 배제된 영적 전쟁으로 연결됩니다. 주 목적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성품과 말과 태도와 행동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기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보고 짐을 져주며 화목을 이룰 때 소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습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공동체 성숙의 진수인 하나됨을 이룬 이스라엘을 본받아 우리 교회도 서로의 짐을 져주는 유업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공동체/가정이 하나되어 화목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토록 중요한지 나누어 주세요.
2.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늘의 복(유업)을 누리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야 할 내적자질의 측면이 있다면 한 두가지 말씀해 봅시다.